

오순절 후 열여덟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9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54 장 “주와 같이 되기를” (통일 50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8 번 시편 9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9:30-37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찬양대
설 교 Sermon	“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Must Be the Servan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의 은혜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55 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50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보다는,

죄악된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걸논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주저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으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막9:35**)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Twelve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Mark 9:3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2 (주일)	9/23 (월)	9/24 (화)	9/25 (수)	9/26 (목)	9/27 (금)	9/28 (토)
	삼하19	삼하20	삼하21	삼하22	삼하23	삼하24	왕상1
본문	고후12	고후13	갈1	갈2	갈3	갈4	갈5
	겔26	겔27	겔28	겔29	겔30	겔31	겔32
	시74	시75,76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25수 오후7:30)	“말씀이신 예수님”(요1:1-18) - 한경준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9/28토 오전6:30)	“섬김, 축복의 통로”(왕하48:17) - 김강석 장로

지난 주일 (9/15) 말씀 (허봉기 목사)

“교 회” (막 2:1-12)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보니,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처음 출현한 예루살렘 교회는 실로 대단한 교회였고,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의 핵심 개념”은 “다르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함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시고, 그리스도 인이 거룩하다 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믿음은 모두 우리 자신만 잘 되는 믿음인 경우가 많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세상과 다르게 풀어가는 곳이며,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좋은 일 때문에 성장하지만, 굳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굳은 일을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기에(요13:34-35), 이러한 친절과 환대 그리고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